

종교 경계 없이 번지는 '광주 코로나'

방관 오피스텔·요양시설 거쳐 대형 교회로

일곡중앙회발 광주 첫 초등학생 확진자도 나와

절에서 시작된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9일 사이 방문판매 관련 오피스텔, 요양시설을 거쳐 대형교회로까지 번졌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확인된 광주 코로나19 확진자는 75명이다. 해외 입국자 2명을 뺀 73명 중 6명은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복사 방문자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34번'은 지난달 23일 이 절을 찾았다. 그와 접촉한 남편과 스님 등 2명이 확진됐고, 스님과 접촉한 3명(타지역 5명 제외)도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튿날 오전 북구 한 한방병원에서 '광주 34번'과 '광주 37번'이 접촉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방문지는 오피스텔로 옮겨갔다. 37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이 60대 여성은 50~70대 노인들이 자주 모인 동구 충장로4가 금양오피스

텔 10층 한 사무실에 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광주사랑교회를 방문한 '광주 48번', 가족, 지인과 제주도를 방문한 '광주 45번'이 있다.

금양오피스텔 505호를 쓰던 '광주 83번'이 지난 6월 11일 대전 방문판매업 종사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과 '깜깜이 확진자'로 분류됐던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광주 42번'이 이 건물에 방문한 사실도 추가 역학조사에서 확인됐다. 조발확진자가 광복사 방문자로 나왔지만, GPS 추적 결과 광복사 관련 확진자들이 금양오피스텔에 방문한 흔적이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금양오피스텔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는 26명(제주여행 관련 6명 포함)이다. 지역각염은 '광주 48번'이 지난 21일 찾은 광주사랑교회를 통해서도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해당 교회 신자와 가족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전파됐다. 신자 등 15명(전남 2명 제외)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이중 2명이 근무하던 CCC아가페실 버섯터와 한울요양원에서도 각각 7명과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일 하루에만 광주사랑교회와 관련해 12명이 확진되면서 광주지역 하루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20명을 넘어사기도 했다.

2일 8명, 3일 6명으로 확산세가 주춤하는 듯 했지만 3일부터 전북 28번째 확진자가 들렀던 일곡중앙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신자 수가 20명 남짓인 광주사랑교회와 달리 일곡중앙교회 신자는 150명에 이르는 중대형교회로 알려졌다.

3일 전날 장성 거주 신자 1명(광주 92번)이 확진됐고, 이 교회 신자들과 그 가족 등을 상대로 한 검사 결과 4일 하루 1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광주 첫 초등학생 확진자도 나왔다.

신봉우 기자

음주상태로 모터보트 운항한 50대 남성 적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정 11척, 과출소 5개소 및 육상단속요원이 출동해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했다.

130척의 수상레저보트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 2건(0.045%, 0.02%/훈방조치)을 적발했다.

50대 남성 A씨는 홍원항 남서쪽 약 3km 해상에서 술을 먹고 0.4톤급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불시 검문검색 중이던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콜농도 0.045%로 측정됐다.

현행법상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부고속도로서 20대 음주 교통사고... 2명 사상

5일 경부고속도로 대전IC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0대 중반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IC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폭스바겐 패이튼 승용차를 몰다 1톤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쉐보레 나나 포터 화물차가 고속도로 방음벽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B씨(59)가 숨졌다.

화물차 동승자인 C씨(59)도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폭스바겐 승용차와 3차로를 달리던 포터 화물차가 서로 2차로로 전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면허취소수준(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대교 부근 폭발물 터져 낚시하던 70대男 부상

지난 4일 오후 6시49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김포대교 부근에서 폭발물이 터져 70대 남성 A씨가 부상을 당했다.

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함께 낚시를 왔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A씨의 지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 내에서 낚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 1970년대 초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철책이 설치됐다가 지난 2014년 철거된 이후 민간에 개방된 지역이다.

경찰은 A씨가 폭발물을 밟아서 터진 것인지 등을, 군당국은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여직원 성희롱·출장비 부당수령 공기업 직원 해임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출장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공기업 직원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는 A씨가 전남 나주에 위치한 B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여직원에게 밤늦게 '성희롱' 관련 메시지를 보내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와 출장거리를 과다하게 산정해 유류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B사는 A씨에게 2018년 중순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는 방어권을 침해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사유 소명 기회를 가졌던 점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점 등을 이유로 B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며 "B사가 익명제보에 의한 조사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폭발' 광주 예배 자제 요구에도...55곳 방역지침 무시

교회 1492개소에 공무원 629명 투입돼 점검

광주시가 방역대응 체계 격상 이후 첫 일요일을 맞아 지역 종교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3.7% 가량의 교회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1492개소의 종교시설에 시와 5개 구청 공무

원 629명을 투입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 중 50인 이상이 예배에 참석한 교회가 55곳으로 3.7% 가량이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은 이미 50명 이상이 들 어간 곳에 대해서는 50인 미만으로

맞춰 퇴실 조치를 했으며, 50인 이하로 맞춰진 곳에 대해서는 더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입실 제한 조치를 했다.

이 외에도 출입 전 신도들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여부, 발열 상태 확인, 손 소독, 출입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시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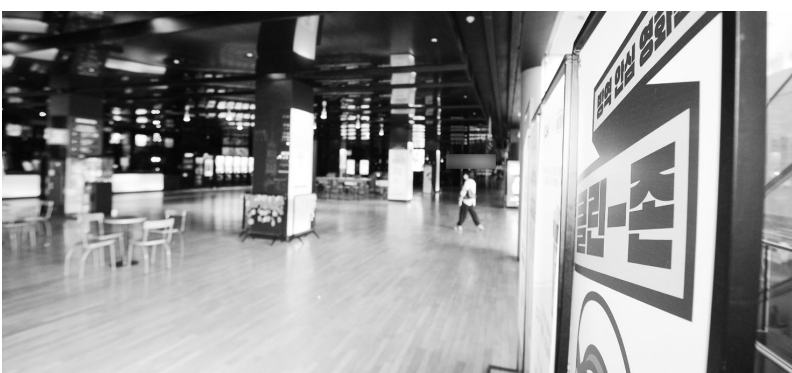
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과 행사를 금지했다.

단 참여인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집합 준수 시 모임이 가능하다. 방역지침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조치,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오유나 기자

코로나 휩쓴 광주 영화관...120석 관람석에 달랑 3명 앉아

마트·백화점도 시민들 발길 한산



4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영화관이 인적 없이 썰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광주에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일부 극장이나 마트, 백화점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4일 점심시간 때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극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27일부터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5명이 발생한 영향인지 극장을 찾은 시민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3명의 시민들이 12시에 시작하는 영화를 보려고 기다릴 뿐 다른

사람들의 발길은 보이지 않았다. 해당 영화의 관람객은 모두 120석으로 구성돼 있다.

영화관 관계자는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어 나오면서 영화를 보러 오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영화관 인근 백화점은 문을 열기 전에 몇몇 시민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평소 휴일 풍경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게 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이날 백화점에 들어가는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김민정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